

## 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상철 전 KT사장 임명

지난달 11일 개각이 단행되면서 이상철 전 KT사장이 양승택 장관의 뒤를 이어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상철 신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은 IT강국을 넘어 IT 선도국으로 발돋움했다"며 "IT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이상철 신임 장관에 대한 각계의 평가는 일단 '확실한 정보통신전문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모아졌다. 특히 이 장관이 KT사장일 때부터 남다른 추진력과 카리스마를 보여준 바 있어 정통부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신임 장관의 임기가 길어야 7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통신정책의 변화는 보여주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에 대해 이상철 신임 장관은 "7개월도 열심히 노력하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라며 "재임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IT선도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 SK텔레콤 신임사장에 김정수씨 선임

SK그룹의 별정통신분야 계열사인 SK텔레콤의 신임 대표이사로 김정수 SK텔레콤 FWM사업추진단장이 선임됐다.

김 신임사장은 "SK텔레콤의 휴대폰 국제전화 '00700' 서비스는 이미 국내에서 보편화된 동시에 가장 개인화된 통신 매개체"라며 "앞으로 세분화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카테고리별로 묶어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사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KIST·ETRI 등에서 기획·전략분야 연구원을 지낸 바 있으며 이후 KT 기획조정실장, SK텔레콤 전무, 넷츠고 대표 등을 역임했다.



## SSI 신임사장에 윤효철씨 선임

통신용 핵심부품 생산업체인 SSI가 신임대표이사에 윤효철 전 성우LCD의 사장을 선임했다.

신임 윤 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KAIST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라그룹 우주항공 연구소장, 현대시멘트 계열의 성우e컴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SSI는 이동전화 단말기 업체인 세원텔레콤의 자회사로 단말기용 반도체 및 갈륨비소(Ga-As) 반도체, 블루 LED 등의 광소자와 단말기용 배터리 등을 생산하고 있다.

## 유니와이드 신임사장에 김근범씨 영입

수뢰사건에 휘말려 곤경에 처했던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가 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한데 이어 신임 대표이사를 영입했다.

유니와이드는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장갑석 전 대표이사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미국 아프로인터내셔널사 대표인 김근범씨를 신임사장으로 영입했다.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MBA를 취득한 김 사장은 지난 91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네트워크 서버 제조업체인 아프로인터내셔널사를 설립, 대표이사로 재직해왔다.



## 하나포스닷컴 출범 대표이사 안병균 상무

드림엑스와 하나넷을 통합한 퍼스널 포털 하나포스닷컴이 지난달 정식 출범했다. 하나로드림은 지난달 '하나포스닷컴 런칭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매출 390억원에 순이익 30억원을 달성, 포털업계 3위로 올라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포스닷컴은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인터넷'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총 3만여개 유·무선 콘텐츠 등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나포스닷컴의 대표이사 사장은 신윤식 현 하나로통신 사장이 겸임하며 한시적으로 안병균 상무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 월드컴 한국지사장에 김지만 팀장 승진 임명

미국 제2의 장거리 전화 사업자인 월드컴의 한국 지사장에 김지만 전 기획·마케팅 팀장이 승진 임명됐다.

월드컴 아태지역 본사는 지난 5월 말 이후 20여명의 지원자에 대해 심사작업을 벌여온 결과 국내 시장에 밝은 김지만 신임사장을 승진 임명케 됐다고 밝혔다.

### MS 조직개편 단행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단행, 새 회계연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달 새로운 회계연도를 맞은 MS는 이번 회계연도부터 대기업

과 공공시장에 대응하는 고객사업본부와 기술지원 역할을 맡는 기술지원본부, 개발지원팀 등에 대한 역할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회사는 고객사업본부 박명철 전무와 통신사업본부 오승범 상무, 컨설팅사업부 김진우 이사 등을 영입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 인크토미코리아 지사장에 전원주씨

인크토미코리아가 신임 지사장에 전원주 전 솔루션영업부 이사를 선임했다. 전 신임사장은 쌍용정보통신과 컴팩코리아를 거쳐 인크토미 솔루션영업부 이사 등을 역임했다.

## 인사

<b>산업자원부</b>	산업혁신과장 강남훈
<b>아이티플러스</b>	전무 이익재(CFO) 상무 정보기술연구소 황보현(CTO, 연구소장) CMS사업팀/전략기획팀 조외현 이사 솔루션사업2팀 이주찬
<b>중소기업청</b>	부이사관 감사담당관 신중현 자금지원과장 정영태 서기관 기업진흥과 최창호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장 안병수
<b>코오롱정보통신</b>	영업본부장 김대환 전무 전략기획실장 겸 솔루션사업본부장 황성영 상무 서비스사업본부장 구창모 이사